

## 보도자료



보도분류	브리핑( ) 보도자료 제공( ✓ )
보도일시	2022.10.25.(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과	스마트시티과
담 당	과장 정윤희, 스마트전략팀장 구병길, 담당 김종원 · 이미영(032-453-7464)

### 스타트업 육성 등 양해각서 체결...IFEZ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성료 인천·캐나다 퀘벡주, 글로벌 진출·교류협력에 공동 노력 두 도시 간 스마트시티 최첨단 기술·혁신사례 공유·스타트업 육성 협력 등도 논의

- ‘2022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이 스타트업 육성·협력과 관련해 IFEZ와 캐나다 퀘벡주, 두 지역 스타트업 간 양해각서가 각각 체결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지난 25일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엠베서더 호텔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인천경제청은 인천테크노파크, 캐나다 퀘벡주의 비영리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센테크(CENTECH)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관련해 양국 스타트업의 교류 협력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혁신기술 스타트업들의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
- 또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육성중인 스타트업인 리보(Rivo)와 퀘벡의 스타트업인 허비에라(HerbiaEra)가 시각 장애인들이 실내에서 채소 등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을 협력하는 등 혁신기술 융합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 인천경제청이 주최하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 주한 퀘벡주정부 대표부, 인천스마트시티(주), 한국스탠포드센터, 인천 스타트업파크 소속 기업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 허식

인천시의회의장, 퀘벡 주정부 레미 퀴리온(Rémi Quirion) 최고 과학자가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특히, 존비에브 롤랑(Geneviève Rolland) 주한퀘벡주정부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혁신의 나라로 변하고 있는 캐나다 퀘벡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도시인 인천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도시의 혁신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 “스마트시티와 스타트업을 통한 도시 발전과 혁신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또 첫 번째 기조강연으로 나선 마히에브 종(Marie-eve Jean) 퀘벡투자공사(Investment Quebec International) 부대표는 퀘벡주의 스마트시티와 스타트업 관련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두 번째 기조강연자인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는 글로벌 도시들의 스마트 평가지수(INDEX)에 스타트업과 시민들의 참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며 인천의 I-Mod(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및 자율주행 도심배송 실증 시민참여 리빙랩 사례를 알렸다. 마지막 기조강연에 나선 제시 빈센트 허스코비치(Jesse Vincent-Herscovici) 마이텍스(Mitacs) 사업개발 부사장은 정부, 기업(산업), 연구기관(인턴십 중심)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캐나다 혁신 생태계에 대해 소개했다.
- 2부에서는 △스마트&탄력적인 도시를 위한 혁신 기반기술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스타트업 기술과 혁신이라는 3개의 세부 주제별로 전문가 세션이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연세대학교 양자정보기술연구원 문경순 원장 및 캐나다 퀘벡 양자센터 올리버 가는 고딜러(Olivier Gagnon-Gordillo) 센터장이 양 도시의 ‘양자 생태계 조성’과 도시의 혁신’에 대해 발표했다. 마크 생힐레르(Marc St-Hilaire) CAE(캐나다 항공시뮬레이션 기업) 기술 및 혁신 담당 부사장, 한국스탠포드센터 박형채 박사는 도심항공교통(UAM)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두 도시의 혁신기술 연구내용을 소개하며 기술을 통한 도시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천 스타트업파크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이지선 대

표 및 센테크(CENTECH)의 리차드 쉐니에(Richard Chénier) 대표, 주한 퀘벡주정부 임용우 상무관이 양 도시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 마지막 세션에서는 캐나다 퀘벡과 인천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나섰다. 퀘벡의 혁신 스타트업인 허비에라(HerbiaEra)의 신디 로메로-루아카(Cindy Romero-Luarca) 대표, 홀라원 테크놀로지스 (HoolaOne Technologies)의 장 데이빗 랑타뉴(Jean-David Lantagne) 공동창업자, 인천의 대표 스타트업인 네오스택(NeoStack) 전진오 대표 및 로비고스 김태영 대표가 함께 했다.
-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행사는 혁신기술과 스타트업 육성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캐나다 퀘벡과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인천이 두 도시의 정책과 경험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글로벌 도시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우리가 육성 지원하는 혁신 스타트업이 내실 있게 세계무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